

'천년의 기다림 달하 노피곰 도다사'



17일 정읍사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상설공연 시원한 폭포수처럼 펼쳐질 신명난 공연 '기대'

정읍시립국악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8월의 '천년의 기다림 달하 노피곰 도다사 상설공연'이 오는 17일 정읍사문화공원에서 펼쳐진다.

저녁 6시 각종 부대행사로 시작될 이번 행사의 본 공연은 8시 본격 시작된다.

본 공연에서는 정읍시립국악단이 '정읍 산세지리'를 통해 정읍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경과 사람을 노래하고 국악원 연수생들이 청아한 대금 선율을 들려주며 택견 판나무들의 '택견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인기곡 '바위섬'으로 유명한 통기타 가수 김원중씨가 출연해 관객들을 7080 감성의 세계로 초대한다. 김씨는 이

날 잔잔한 서정성과 폭발적이고 절제된 가창력으로 '바다가 보이는 창집' 등 귀에 익숙한 다수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번 공연에서는 미술사 김필영씨와 김영록씨가 출연해 변집쇼와 미술쇼를 펼친다. 변집쇼는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는 미술과 같은 연기 기법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극이다. 미술쇼에서는 비둘기와 꽃, 화분, 접시, 계란 등을 활용해 다른 물체로 순간 변신하는 다양한 미술로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공연에 앞서 시작되는 부대행사에서는 정읍지역상품 애용하기 일환으로

'올빼미 보부상'이 운영되고 글씨 재능기부와 전통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추억을 새록새록 되새겨 볼 수 있는 '8090 사진전'도 마련돼 있다.

시는 "기존 공연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3거리 공연의 불거리(정읍사문화공원), 즐김거리(상설공연, 체험), 먹거리(올빼미 보부상) 묘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매일 음력 보름에 맞춰 이번 공연을 가졌고 있으며,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8월의 '달하 노피곰 도다사' 상설공연도 기존 공연 못지않게 스토리가 있는 공연으로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즐김과 신명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독도박물관 공동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 기획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울릉군 독도박물관(관장 이승진)과 함께 오는 10월 31일까지 '근대도시 군산 독도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독도기획전은 군산 시민에게 독도박물관이 소장한 사진과 유물 70여점, 독도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우산국 시기의 독도, 해환정책과 수도정책의 전개, 울릉도 재개척, 일본의 불법적 독도점령, 해방이후 독도, 독도의용수비대, 그리고 되찾은 한국 땅 독도라는 소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독도의 역사, 독도의 사계절과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 할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독도박물관과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젊은 세대와 차세대 청소년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안용복선생과 독도의용수비대의 고뇌와 애국애민 정신을 느끼는데 그 목표가 있다"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의 나라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문 기자

홍민지 피아노 연주회 '프란츠로부터 온 편지'

우진문화재단의 연주기회공연 '우리소리 우리가락' 110회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홍민지가 공연한다.

'프란츠로부터 온 편지'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19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낭만파 작곡가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곡을 연주한다. 이 두 작곡가의 조합은 '프란츠'라는 동일 이름하에 이루어졌다.

발다른 수경 없이 1000여 곡을 완성할 만큼 비범했으나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천재 작곡가슈베르트는 156cm의 작은 키와 내성적인 성격 탓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는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일생 동안 큰 빛을 받지 못하고 31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뒤에 같은 이름으로 태어난 다른 작곡가 리스트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고 뛰어난 외모까지 겸비했으며 그의 음악은 전 유럽을 열광케 한다.

홍민지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극명히 다른 생애를 살았던 작곡가들의 음악, 리스트의 (Nocturne No. 3 A flat Major S. 541 피아노를 위한 녹턴 제 3번)과 (Supplément aux Annees de Pe'lerinage II, S. 162 Venezia e Napoli 베네치아와 나폴리)를, 슈베르트의 (Piano Sonata in A Major, No. 20 D. 959)곡을 그녀 특유의 생동감 있는 연주력으로 들려 줄 예정이다. 이들 음악은 묘사적·서정적이어서 작곡가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배어났다. 그로 인해 형식의 자유스러움을 만끽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음색을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홍민지는 예인음악에 숭고등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음악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 국내의 연주활동을 비롯해 Puro Sono 앨범, 전주성암교회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전북대학교와 군산미성초등학교에 출강하여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연은 오는 11일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티켓은 전석 15,000원 사당티켓 satit.or.kr(6,000원)이다. 공연문의 063)272-7223. /정해은 기자

본격 게임 비평서 출간

'게임,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

게임의 시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5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9조9706억원이다. 전체 콘텐츠 산업의 10%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출판·방송·광고·지식정보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크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비중에서도 게임은 6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게임은 이제 한국의 주요 산업군 중의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게임은 2013년 국회에서 발의한 '4대 중독 관리법'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사회악에 포함되는 불법예를 안았다. 한국은 국가 통계에서 인터넷·모바일 중독을 조사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시각만큼 이율배반적인 것이 없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방지하겠다고 '셧다운제'를 시행함으로써 게임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가 2016년 7월 출시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포켓몬 고'의 인기에 놀라, 이 게임을 새로운 창조경제의 모범으로 추어올리며 우리 게임 업계도 이런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이런 모순을 잘 보여



준다. '게임,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창'은 이처럼 한국에서 게임이 놓인 모순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출간되는 본격 게임 비평서다. /김민근 기자

전북문화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북문화관 아카데미에서는 하반기 수강생을 오는 10~2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과목은 시, 수필, 소설, 동시, 동화, 시낭송 반을 비롯해 이번엔 개설되는 방송작가, 스피치 반이다.

강사진은 시 부문에 정군수 전 전북대평생교육원 문예창작 교수·소재호 석정문학관 관장, 수필에 전일환 전 전주대 부총장·김경희 국제펜클럽 전북위원장, 아동문학에 안도 한국아동문학회 부회장, 소설에 김한창 전북소설분과위원장, 시낭송에

유미숙 전북대평생교육원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학기에 신설되는 방송작가 반에는 KBS 전주방송국극장 진행은 전문방송작가가 초빙돼 방송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한다. 또한 전북나문서협회 방송기획장은 방송 리포터, 아나운서, 사회진행 등 스피치 강연에 나선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15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문화관 (http://www.jbmunhak.com)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 063-252-4411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멜론, 국내 최초 1000만 음원 확보

카카오 계열사인 음악사이트 멜론이 국내 처음으로 최다 음원수인 1000만곡을 확보했다.

멜론은 1000만 음원 확보를 기념해 2800만 이용자들의 추천 음악을 받는 '당신을 위한 노래, 멜론 포유(MelOn for U)'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멜론은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내 인생의 음악'을 주제로 이용자들의 사랑을 31일까지 받는다. 1등 당선자는 제주도 1등식 양복 항공권을 받는다. 멜론은 '소중한 사람을 위한 노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노래'를 주제로 후속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카카오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8700억 원에 인수했다. 카카오의 역대 인수액 최고가다. 두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출범 파트너로 협력해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카카오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서비스에 음악·연예 콘텐츠를 접목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멜론에 카가오페이를 연동하고, 카가오게임과의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8월 5일>

▷쥐띠
46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기는 때다.
60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길한 운이다.
72년생: 큰 움직임을 삼가라.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띠
4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불화 예상.
61년생: 일이 잘 풀릴 때 다음을 준비하라.
7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85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여유로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라.
62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 운이다.
74년생: 생각이 많았던 실수로 인해 낭패가 있겠다.
86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한다.

▷토끼띠
51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6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5년생: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를 유지해야.
87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4년생: 정신이 맑지 않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76년생: 구설수와 시비수로 마음 고생하는 운.
88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
65년생: 여성으로써 재물을 이룬다.
77년생: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잠깐 쉬면서 관망하라.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 틀어진다.
66년생: 좋은 일하고 짝맞는 격.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가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양띠
55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
67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7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신경 쓸 일들이 생긴다.
91년생: 모진 말들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다.
68년생: 동기간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아주 좋은 운이다.
92년생: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닭띠
57년생: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81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무리한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

▷개띠
46년생: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원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0년생: 문서에 길운이 들었다.
82년생: 다 되었고 생각한 일이 끝이 가서 틀어질 수 있으니 끝까지 밤심은 금물.

▷돼지띠
47년생: 마음의 구름이 걷힌다.
59년생: 처음에는 틀어지나 후반에는 화합하니 급하게 서둘지 마라.
71년생: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83년생: 급성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